

# 레이젠 등 협회 회원사들, 수출 3천억 달러 시대의 빛나는 수출 '금자탑' 쌓아

제43회 무역의 날 행사 및 회원사 수상업체 소개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는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희망의 불씨를 심어준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수출업체들. 내수부진의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믿을 건 수출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출은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2004년 수출 2천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년 만에 수출 3천억 달러 시대를 앞당긴 '수출역군' 들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됐다. 이날 본 협회 회원사인 레이시스, 하이셀, 디오스텍, 희망개발 등이 자랑스러운 수출탑을 수상했다.”

○○○ 취재/박지연 기자

계속되는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 실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3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2005년 수출 28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규모 면에서 세계 12위에 오른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액이 3000억 달러를 넘어 1년 만에 한 계단 더 올라설 전망이다. 우리 수출은 지난 2004년에 20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년 만에 3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 1964년 이후 42년 만의 일이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수출은 3200억 달러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여 홍콩을 제치고 세계 11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다시 11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2662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19.6% 늘어난 255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유가와 원화 강세, 경쟁심화 등 불리한 대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14.3%)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출 3000억 달러를 기록한 10개국 중 독일·중국·벨기에 등과 함께 가장 짧은 기간인 2년 만에 달성한 국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 10개국이 2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대로 옮겨가는데 평균 5.9년이 걸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기록은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무역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가능케 한 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분야의 공이 절대적이다”며 “MP3폰·디지털카메라 등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D램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낸드 플래시 수요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방송의 확산으로 LCD TV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 기업들이 대형 패널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 1312개 기업이 '수출의 탑', 760명 유공자 포상

지난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3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는 150억불탑을 수상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 우리나라가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 64년 이후 42년 만인 지난해말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사진은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무역의 날 기념식 때의 광경



▶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탑을 수상하고 있는 레이젠의 태성길 대표(사진 가운데)

**5천만 불탑 - 레이젠 (주)  
LCD 조명 기술의 선진 리딩  
기업 목표, 기술 개발에 박차**

1985년 2월 현대전주금형(주)로 설립, 금형기술과 사출성형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성장 발전한 이 회사는 2000년 6월 레이젠(주)(대표·태성길)로 상호를 변경하며 제2의 창업을 맞았다. 1999년부터 BLU핵심 기술인 도광판 개발을 시작으로 2000년 1월 국내 최초로 무인쇄 도광판 및 초박형 도광판 개발에 성공하여 BLU 기술을 한 단계 높임은 물론, 비용절감을 통해 국내 납품처 다변화와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

여 1312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중공업이 각각 60억불 탑과 50억 불탑을 받게 됐고 LG화학이 40억불탑, 동우화인켐·만도·희성전자가 10억불탑, 휴맥스·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5억불탑을 각각 수상했다. 심텍·로움코리아·대성전기공업·대덕지디에스가 2억불탑을, 부전전자부품·히로세코리아가 1억불탑을 각각 수상하게 되는 등 전자부품 업체의 약진도 눈에 띈다.

유공자 부문에서는 변대규 휴맥스 사장과 류철근 희성전자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서태식 삼영테크놀로지 사장과 이한구 코텍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또 전명석 심텍 사장과 KOTRA 김수익 부사장이 각각 동탑산업훈장과 석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IT기업인과 수출진흥기관 관계자들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한편, 한국광학기협회 회원사중에서 레이젠이 5천만불탑을, 하이셀이 3천만불탑, 디오스텍이 1천만불탑, 희망개발이 1백만불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공자 부문에서는 휴바이론의 박재성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이어 휴바이론의 조태형 과장과 김영자 사원이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레이젠의 허광훈 대표와 권순창 차장이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다음은 레이젠, 하이셀, 디오스텍, 희망개발 등 수상업체에 대한 소개이다.

했다. 2004년에는 중국 천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 결과 1998년 54억원이던 매출이 2005년에는 674억원으로 크게 신장했으며, 2006년에는 1226억 이상 달성하면서 무역의 날 수출탑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에는 당시 광학업체로는 드물게 코스닥에 등록하며 주목을 받은 레이젠은 2002년 12월 본사 왜관 공장이 경북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03년에는 경북 신인류중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회사의 이미지를 높였다.

태성길 사장은 "휴대폰과 PDA 등 모바일, 정보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장치 등 LCD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레이젠에서는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2007년에도 LCD 조명 기술의 선진 리딩 기업을 목표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술 및 설비투자에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레이젠에서는 2004년 5월 안성 공장을 설립한데 이어 현재 본사인 경북 칠곡 왜관 공장 옆에 신규공장 설립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06년에는 원자재를 도광판에 산입하는 획기적인 프리즘 도광판 개발에 성공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 하이셀의 송승훈 대표



▶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탑을 수상한 디오스텍의 한부영 대표

### 3천만 불탑 - 하이셀 (주)

**원천 기술력과 고품질로 2007년 수출액 5천만 불 목표**

정밀부품소재 전문기업 하이셀(대표·송승훈)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로 금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된 하이셀은 캐시카우인 광기능성 필름 및 백라이트유닛(BLU)의 수출액이 3천300만 불을 기록, 전년(2004.07~2005.06) 수출액인 1천400만 불 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동안 국내 최고 수준의 초정밀 가공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 주력 제품을 수출해 온 하이셀은 지난해 독일 월드컵과 동계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로 인한 평면TV 돌풍과 고급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의 성장 등으로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이번 수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송승훈 사장은 "3천만 불 수출 달성은 하이셀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원천 기술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2007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여 수출액 5천만 불 달성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셀은 2005년 엔투에이와 합병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어왔으며 지난해 상반기 국내 LCD 및 휴대폰 산업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흑자경영에 성공하며 수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이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부터 LCD 광학시트 부문과 이미지센서 등 휴대폰 부문의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천만 불탑 - (주)디오스텍  
설립 4년 만에 블루투스 헤드셋 등 신사업 조기정착으로 견조한 성장세**

첨단광학렌즈 전문기업 디오스텍(대표·한부영)이 설립 4년 만에 '제 4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초소형 카메라 렌즈 모듈의 수출액이 약 1천 50만 불을 기록했다.

현재 중국, 대만, 일본 등지에 카메라 모듈을 수출 중인 디오스텍은 지난해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고화소 카메라폰의 수요가 급증, Mega급 렌즈모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1천만 불 수출의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용인에 제2 공장을 준공하면서 자체생산 능력을 월 350만 세트로 끌어올린 결과 해외 수출 신장에 따른 주문량 증가에 적절히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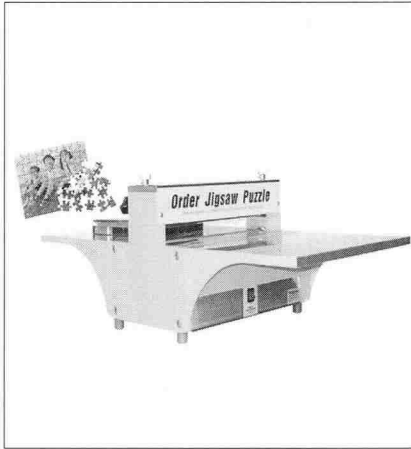
디오스텍의 한부영 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외 마케팅 강화에 주력, 세계 최고 수준의 카메라 렌즈모듈 생산업체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2M급 이상 고화소 렌즈모듈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2007년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오스텍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할 블루투스 제품과 일본 호리바제작소, 히타치 등에 공급 중인 자동차 블랙박스용 카메라 모듈의 수주량 증가로 인한 수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측은 "주력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량 증가 및



▶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탑을 수상한 희망개발의 이준구 대표



▶ 희망개발의 수출 일등공신인 퍼즐머신기(직소퍼즐머신 HR-1218)는 사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다.

희망개발의 주력상품은 즉석에서 퍼즐을 만들어주는 즉석 퍼즐기계이다. 기존 유압식 퍼즐기가 전문제조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면, 희망개발의 즉석퍼즐기계는 소매점이나 혹은 이벤트에서 퍼즐을 만들어 주는 출장 서비스 등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12"×18" 사이즈 퍼즐의 생산을 가능토록 했다. 누구나 사진, 인쇄물로 퍼즐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직소퍼즐머신 HR-1218은 저렴하면서도 사진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즉석퍼즐머신 HR-1218SA는 반자동 방식으로서 사용자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블랙박스용 렌즈모듈에 이어 디지털 X-레이용 렌즈모듈까지 고부가 신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통해 올해에는 더욱 안정적인 매출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백만 불탑 - 희망개발**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꾸준한 해외 전시회 참가 노력이 빛을 발해**

1985년 11월 설립된 희망개발(대표·이준구)은 사진커팅기인 Press Cutter의 판매를 시작으로 Button Machine과 Posing Table & Posing Stool을 개발,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면서 사진관련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97년 즉석퍼즐머신 HR-1140을 개발하여 그 기술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으며 2005년, 2006년엔 자동 버튼머신의 개발과 더불어 좀 더 업그레이드된 퍼즐머신 HR-1218과 HR-1218SA를 개발하여 CE 및 UL 품질 인증을 취득했다. 2006년 미국 PMA 전시회에서는 퍼즐머신 HR-1218이 전시회 주관 혁신 제품상인 'DIMA 2006'으로 선정되어 각국 바이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가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퍼즐을 만들 수 있어 많은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호주, 그리스 등 7개국에 10개의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외 동유럽 및 아시아, 아프리카국가 등 약 30여 개국에 활발히 수출을 벌이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 Walmart 내 사진관에서는 희망개발의 퍼즐기계로 만든 사진퍼즐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준구 사장은 "큰 공장에서만 사용할 수 없었던 기존의 퍼즐기계를 소형으로 개발한 것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쁜 일이다"며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전시회를 통한 과감한 투자가 지금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활발한 국내외 전시회 참여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